

1. 네 개의 제시문은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개인의 의지가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제시문은 (가)와 (라)이다. (가)의 사회는 개개인의 욕구와 요구를 최대한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견이 사회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지가 사회체제의 규칙을 확립하는데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한편 (라)의 사회에서도 (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정치적 신념이 사회의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 시민들이 직접 사회의 이익과 질서, 공동 의지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도덕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의 결속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강한 공동체적 유대가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된 경우엔, 일반 시민도 부도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의 개인은 사회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다. 결국, (가)의 개인이 (라)의 개인보다 사회에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반면에 (나)와 (다)의 시민들은 전자의 시민들과는 달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다. 우선 (나)의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물려받는다. 개인이 지닌 정체성은 가족, 도시, 국가 등에 의해 공유되는 사회적인 정체성으로서, 삶의 기반이다. 결국 개인은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 내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국가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나'에게 이로울 것이 '내가 속한 사회'에도 이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사회 집단에 결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바로 (다)이다. (다)의 경우, 집단은 결코 개인의 총합이 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구성한 사회 집단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은 사회의 질서 확립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는 도덕적인 개인을 이기적인 존재로 조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 (라), (나), (다)의 순서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높다.

2. 네 개의 제시문들은 구성원 간의 상충된 요구와 주장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중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법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선 구성원간의 갈등을 개인적 관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은 (나)와 (라)이다. (나)의 경우,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기대되는 바를 습득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사고할 수 있다. 때문에, (나)에 있어 사회가 부과하는 체제나 법률로는 구성원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나와 사회에게 모두 이로울 것이 무엇인지 사고할 때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정체성의 발현으로 구성원 스스로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라)에서도 시민들의 도덕성 함양을 강조할 것인데, 진정한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집단적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갈등이 발생할 때엔, 공청회 등을 통해 개인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논의하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은 (가)와 (다)이다. 우선 (가)에 있어, 사회 체제의 정립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체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개개인의 요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것이 제1원칙이지만, 모두의 욕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관망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 상호간에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날 때엔, 특정한 사회 기관이나 합리적인 개인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개입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 도저히 주체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기 보다는 강력한 법 체제 등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